

## 존재감 잃은 민주당 필요한건 정책·혁신

‘메가 시티’ ‘공매도 금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이슈 물이에 정국 주도권 잃고 끌려다녀 비명계 탈당 등 내분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이슈를 뺏긴 민주당으로서 정책개발을 통한 반전 카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연일 총선용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분열 속에 이슈 선정과 쇄신 경쟁에서가 지뒤편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혁신위원장을 출범시켜 보름여 만에 당내 통합과 희생 등을 키워드로 각종 혁신안을 쏟아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도부와 중진,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합치 출마 요구와 함께 45세 미만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우세 지역구 청년 배정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인적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의 경우 개혁 의제를 선점하면서 다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아직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100% 수용될지는 미지수지만, 보선 패배 이후 급락했던 당의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교시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 시티 서울’에서 광주, 부산까지 거점을 확대한 ‘3축 메가 시티’로 구상을 확대하는 초대형 정책에 이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금지’ 등 국민의힘이 총선용 주요 이슈를 모두 선점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에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방탄 국회’ 이미지를 떨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낙승 효과’는 한 달만에 실종되는 분위기



무등산 ‘빙벽’ 초겨울 날씨를 보인 12일, 무등산국립공원 북쪽 바위벽에 빙벽이 만들어져 추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 여당이 던진 초대형 정책과 혁신 드라이브에 치이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계파 갈등 등 잠복했던 이슈가 다시 부상하면서 ‘내외외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진 만큼 낙승 기세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여당에 빼앗긴 정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률 3% 달성론’과 황재세 도입으로 맞불을 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다.

168석의 거대 의석에도 집권 여당의 정책 카드에 맞대응할 패가 마땅하지 않다는 야당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당내에서는 특히 쇄신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한껏 혁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계파 갈등만 재점화하며 내분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선거 승리 이후 바짝

몸을 낮춘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천 학살’ 우려 목소리를 키우며 ‘이재명 힘치출론’을 제기하는 한편 탈당이나 집단행동까지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선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요직인 조직사 무부총장에 친명계 김운덕 의원이 임명되면서 비명계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내년 총선에 나설 일부 후보들의 ‘진명 팔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총선거확대인 현역의원 폐널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은경 혁신위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 현실성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야당인 만큼 여당보다 더 치열한 당내 개혁과 혁신을 해나가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	------	------

12월 7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23년 12월 7일(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유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결봉부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4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 일찍 찾아온 겨울 ... 16일 수능날엔 ‘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수능) 당일 광주·전남에는 비가 내리겠다.

1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아침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다가 15일부터 영상 5도 이상으로 올라 수능날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중기예보를 통해 “13일부터 15일까지는 흐린 날이 이어지고, 16일 오후 강수확률 90%로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은 14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13일 아침최저기온 영하 2-4도, 낮최고기온은 10-13도를 보이고 14일 아침최저기온 영하 2-5도, 낮최고기온은 12-15도에 분포해 평년보다 5-6도 가량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4일까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고 내다봤다.

다만 15일부터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맑은 날씨를 보이며 아침 최저기온이 1-7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겠다.

이어 수능 당일인 1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5도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예상 강수구역과 강수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위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50년  
**금호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 소 : 광주 금호고등학교 축로관

광주 금호고등학교 총동문회



## 2023년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